

1 2023 하반기 시장개척단 운영일정

사업명	운영일정	운영지역	상담방법
CIS 시장개척단	8.21(월)~8.25(금)	타슈켄트/알마티/울란바토르	현지파견
대양주 시장개척단	9.11(월)~9.21(목)	시드니/멜버른/오클랜드	현지파견
일본 시장개척단	9.18(월)~9.22(금)	도쿄/오사카	현지파견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추진지역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경기도 타시군과 공동추진할 수 있음

2 2023 하반기 시장개척단 세부계획

(1) CIS 시장개척단(8월 파견)

①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3. 8. 21.(월) ~ 8. 25.(금)
- 운영지역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알마티), 몽골(울란바토르)
- 유망품목 : 종합품목(전기기계, 건축자재, 의료기기, 화장품, 가공식품 등)
- 협력기관 : KOTRA 타슈켄트, 알마티, 울란바토르 무역관

② 해외시장 분석

- (주요 시장현황)
 - (우즈베키스탄) 2021년에는 팬데믹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며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5.4%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광 등이 활성화됨

- (카자흐스탄) 2022년 유가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4%의 경제성장률 기록, 2023년에도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나,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의 물가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 전망
- (몽골) 2022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었으나, 하반기 광물 수출량 증가로 약 2.4% 경제성장률이 기대되고 2023년 경제가 급성장하여 5%대 이상으로 전망

○ (시장진출 전략)

-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 수출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한 기계설비, 부품소재 진출 확대 및 중단없는 에너지 공급 정책에 따른 프로젝트, 기계설비 분야 진출 전개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부각된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시장의 대내외적 장점을 활용한 투자 진출 및 한국 제품 프리미엄 이미지를 활용한 소비재 · 유통업 진출 적극 공략
- (울란바토르) 높은 한류 인기와 젊은 소비층을 보유, 한류 프리미엄을 활용한 소비재를 적극 공략하고,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등 탄소 절감 및 환경 개선 등 새로운 시장의 사업 기회에 적극 공략 필요

○ (수출 유망품목)

- 타슈켄트 : 전기차, 배터리 충전 장치, 고급 엔진오일, 의약품, 화장품 등
- 알마티 : 중고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엔진 오일, 보일러, 영유아용 스킨케어 제품, 전동 킥보드, 굴삭기, 온실 하우스 필름 등
- 울란바토르 : 의약품, 화장품, 과자, 라면, 전기차 등

[2] 대양주 시장개척단(파견)

1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3. 9. 11.(월) ~ 9. 21.(목) / 2주간
- 운영지역 : 호주(시드니, 멜버른), 뉴질랜드(오클랜드)
- 유망품목 : 소비재 품목
- 협력기관 : KOTRA 시드니, 멜버른, 오클랜드 무역관

2 해외시장 분석

- (주요 시장현황)
 - (호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2년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 이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
 - (뉴질랜드)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32년만에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7.3%로 치솟고, 가파른 물가 상승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로 소비심리의 위축이 지속되나, 국경 재개방으로 침체되었던 핵심 산업인 관광과 교육 부문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
- (시장진출 전략)
 - (호주) 한-호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양국의 공조를 통한 미래 성장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정부 및 기업 수요 발굴로 신규 교역 기회 확대
 - (뉴질랜드) 한국 소비재 시장 확대 및 신규 수요 창출,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 속 전기자동차 수출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공급망 병목 현상을 역이용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수출 기회 발굴 및 한국 강점을 활용한 한-뉴 인적 교류 확대

○ (수출 유망품목)

- 호주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PVC 바닥재, 화물자동차, 김치, 색조화장품, 스낵, 음료, 버섯, 차량용 라이트 등
- 뉴질랜드 : 김치, 화장품, 소스류, 조미김, 라면, 전기자동차, 태양전지판, 석고보드, 농업 관련 제품 등

(3) 일본 시장개척단(파견)

①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3. 9. 18.(월) ~ 9. 22.(금)
- 운영지역 : 일본(도쿄, 오사카)
- 유망품목 : 소비재 품목(오사카 판매점 내 한국전시회와 연계 진행)
- 협력기관 : KOTRA 도쿄, 오사카 무역관

② 해외시장 분석

- (주요 시장현황)
 - 전세계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금융 긴축정책(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가운데, 일본만이 장기금리 동결로 경기 악화를 방어하는 정책을 유지
 - 2023년 상반기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서비스 소비 유지, 인바운드(관광객) 수요개선으로 서비스 수출 회복, 디지털 인적자원 설비투자 강화 등 경기 상승요소와 개인 소비 둔화, 재화 수출의 정체, 공공투자 하락 등 후퇴요소가 대치되며, 2024년까지 완만한 회복 예상
 - 일본 정부는 고물가와 엔저 약세 등에 대응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고 극복하고자 노력중

○ (시장진출 전략)

- 제조·물류 분야의 스마트와 시장과 교육·금융·쇼핑·인프라점검 등 제반 분야 공략 및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기술, 전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시장 진입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 진출 확대
-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포착, K-콘텐츠 기반 식품·소비재와 확대되는 일본 레저시장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실버세대 니즈 맞춤형 헬스케어·돌봄시장 진출, 현지 지자체·대기업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의 신성장 분야 진출

○ (수출 유망품목)

-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각종 센서, 태양광 발전장치, 수소탱크, GX 수소 연료 전지, 블랙박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EV) 충전기, 이차 전지, 화장품, 냉동식품, 한류 잡화, 문구, 오트밀 한식, 김, 한식 레토르 식품, 의료기기, 서비스 로봇 등